부처님오신날 특집

대불련 35년 어제와 오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초대회장 신호철)는 1963년 서울지역 17개 대학 불교학생회와 삼군사관학교 불자 대학생들의 원력으로 탄생, '엘리트집단'으로서 35년의 성상을 이어왔다.

서울대학교 불교학생회가 서돈각박사(불교진흥원 이사장)를 지도교수로 매월 불교사상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하면서 각 대학 불교학생회 창립이 불길 번지듯 퍼졌고, 4개월여만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구성이라는 한국불교사에 남을 개가를 올렸다.

'한국불교바로세우기'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엘리트집단'으로 주목받은 대불련은 출범당시의 신행중심 기조에서 70~80년대에는 민중불교운동론을 제기, 한국불교를 선두에서 이끌어 왔다. 그러나 △교계의 대학생포교에 대한 인식부족 △포교프로그램의 부재 △인재양성에 따른 일꾼교육의 연계성 미흡 △지도법사 부족 △자립력 결여 △회원간의 결속력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며 돌파구를 찾지 못한채 90년도를 맞는 시련의 과거를 보냈다.

성타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은 "회원의 급격한 감소, 활동력의 상실 등 시련을 겪긴 했지만 대학생불자들의 정의롭고 순수한 비판은 암울한 시대를 살아야했던 기성세대에게 자기반성의 계기를 제공했고, 우리 역사가 나아가야 할 잣대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대불련은 올해를 '신행혁신의 해'로 정했다.

35년차의 신행혁신은 새내기 유치 공개강좌 개최, KBUF불교아카데미 운영, 북한동포돕기운동, 교리·시사토론·수행·풍물·불교문화소모임 등을 통해 빛을 발하고 있다. 복지단체에서의 봉사활동 또한 변화된 모습 중의 하나이다.

1963년 창립 23개 지부 173개 지회
민중운동 한몫… 97년 '신행혁신해'

동문모임 '大佛'

대불(大佛). 18만여명의 동문으로 구성된 대불련 총동문회는 67년 결성된 학사불교회의 맥을 이어 95년 4월16일 창립됐다.

초대 이사장에 명호근씨(쌍용화재해상보험(주)사장)가 추대됐으며, 신상철(6년차 본부회장)사무국장이 실무를 맡아 하고 있다. 또 휴암(은해사 기기암) 홍파(관음종 총무원장) 보광(동국대 교수) 법현(불교레크리에이션회장)스님, 오형근(동국대) 신규탁(연세대) 고준환(경기대) 연기영(동국대)교수, 박세일 청와대사회복지수석, 박주탁 수산그룹 회장, 박찬주 국회의원 등 대불련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다.

'대불'은 출범당시 법인 구성을 통해 포괄적인 사회참여를 지향하는 단체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열악한 경제기반 등의 이유로 2년여의 준비과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부로부터 승인불가 판정을 받아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대불'은 대불련출신 스님 의사 변호사 교수 교사 사업가들을 산하기구인 학술원(원장 오형근) 복지원(이사장 명호근) 등에 영입, 전문영역을 구축할 계획이다.

18만 회원 95년 재결집
홍파스님·박세일수석등 회원

대불련 신행의식 조사

"졸업후 신행지속" 47%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지성불교의 산실로서 미래불교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창립 35주년을 맞은 대불련은 올해를 '신행혁신의 해'로 정하고 '신행을 통해 현재의 침체를 벗어나 한국불교의 진정한 리더로서 거듭나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대불련의 신행의식과 현황조사'를 실시, 바람직한 대불련상을 정립하고,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설문조사는 우편 또는 면접조사 방법을 택했으며 489명의 불자 대학생이 응답했다. 응답자는 남자 273명, 여자 216명이며 학년별로는 1학년 177명, 2학년 174명, 3학년 87명, 4학년 5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편집자 주〉

◇대불련은 자신의 혁신이 대불련을 바로 세우고 한국불교를 희망적으로 이끌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사진은 여름수련대회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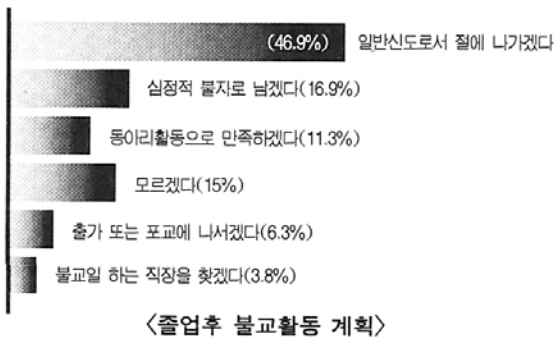
'X세대'로 불리는 신세대들을 흔히 자기표현과 자의식이 강하다고 말한다. 불자대학생들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6명이 주위의 권유나 영향없이 스스로 불자의 길을 선택했으며, 개종에 대해서도 80.7%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데서 확연히 드러난다.

가족종교 불교 68.3%

불교에 귀의하게 된 동기는 불교의 가르침을 삶의 지표로 삼기 위해서(39.0%), 사찰분위기와 불교문화(30.5%) 불교의 사상이나 철학적인 면(26.9%)이 좋아서라는데 고른 응답분포를 보였다. 이는 불교의 가르침이 어느 종교보다도 윤리적이며 철학적인 진리를 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대불련 가입동기를 묻는 질문에서도 비슷한 비율로 분석됐다.

가족의 종교는 68.3%가 모두 불교였으며, 일주일에 2~3회(23.9%) 한달에 1번(17.4%) 일년에 3~4회(15.3%) 주기로 사찰을 찾아 신행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자대학생들은 신행의식은 확고한 반면 신행활동에서는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에 가도 시주를 하지않는 불자대학생이 57.5%나 되며 수지독송하는 경전이 62.0%가 없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65.4%만이 〈반야심경〉을 욀 줄 안다고 응답했다. 이는 타의로 불교를 믿게된 학생에게는 더욱 심해 73.3%가 절에가도 시주를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주 안한다 57.5%…반야심경 욀수있다 65%
불음주 56% 불망어 27% "지키기 어렵다"



〈졸업후 불교활동 계획〉

한편 타의에 의해 불교에 귀의한 사람은 부모님(48.1%) 선배(19.4%) 친구(14.7%) 순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지독송하는 경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천수경(30.6%) 반야심경(27.4%) 금강경(11.3%) 등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전은 가끔(35.5%) 또는 하루 1회(13.8%) 일주일에 1회(13.8%)정도 읽고 36.5%는 틈나는대로 참선염불도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61.6%는 참선 예불 중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참선염불 독경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학생이 25.8%에 달했는데 바빠서(34.7%), 방법을 몰라서(30.7%), 번거로워서(16%), 관심이 없어서(10.7%)라는 이유를 들었다.

80% 이상 회비로 운영

평소 법회참석(34.7%)과 교리 및 경전공부(16.5%)로 신행활동을 하는 불자대학생 60.1%는 신행활동 동안 마음다스리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오계 중 과반수 이상(56.0%)이 불음주를 가장 지키기 어려운 항목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불망어(26.7%)를 지적했다. 평소 호신불 또는 단주를 몸에 착용하고 있는냐는 질문에 절반이상(58.1%)이 그렇다고 답했으며, 착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도 39.4%에 이르렀다.

졸업후에는 절반만(46.9%)이 일반신도로서 절에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을 뿐 심정적인 불자로 남겠다(16.9%) 동아리활동으로 만족하겠다(11.3%)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더우기 불교계서 일하겠다는 3.8%에 불과했다. 이는 종권지향적 승가풍토(20.8%) 승가위주의 종단운영(22.5%) 포교부족(22.4%) 등 한국불교의 병폐를 지적한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대불련을 미래 한국불교의 주역으로 양성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대불련 운영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반수이상(51.3%)이 타종교 대학생단체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활발한

2541 부처님오신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가족도량" ●대보사●

대송 큰스님

두손 모읍니다…

지난, 4월15일 저희 '대보사' 불도량을 북가좌동에서 이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처님오신날에 즈음하여 한분한분 직접 찾아뵙고 연락드리지 못한점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한 도량은 연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통편 또한 어느곳에서든지 이용하실수 있는 곳입니다.

언제든지라도 저희 '대보사'를 방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처럼 복잡하고 세인들의 마음이 착잡할때 일수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좋은 만남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답답하신 일이 있으실때에는 언제라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 '대보사' 도량은 음악도량이기도 합니다. 음악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승 '법현'을 찾아주십시요. 그리고 취미활동으로 악기를 다루고 싶으시다거나, '선' 또는 '명상'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편 : 홍제전철역에서 마을버스 이용 대림APT 하차
(전화번호 : 338-4594~5)

포교당안내

▶ 위 치 : 봉천역 시장통 사거리
▶ 평 수 : 50평
(옥상·베란다·방3개·입식부엌)
▶ 보증금 : 2천5백만원, 월70만원
▶ 시설비 가격절충 가능
연락처 : 02)882-6323

▶ 위 치 : 대구시 두류동
▶ 평 수 : 51평, 3층
▶ 보증금 : 2천만원, 월40만원
▶ 수련장 가능
연락처 : 053)626-7220
053)656-8808

기타광고

탈종공고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귀하
사찰명 : 제천암
주 소 : 충남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 428번지
주 지 : 하필갑
노쇠관계로 인해 부득이 탈종을 공고함.
1997. 5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 393-1
대 원 사
연락처 : 0331)262-0606

학생모집
▶ 포교교육과 : 동양종교, 종교음악, 역학지도
▶ 유아교육과 : 유아놀이, 아동미술, 생활미술
▶ 종무 행정 : 상담실무, 상담행정, 생활상담
1. 수료후 수료증 수여 및 자격증 (포교사, 법사, 유아지도자, 창작놀이사, 불음법회사, 상담사, 역학사) 취득가능
2. 소형버스 통학가능
3. 충북괴산에서 월 2회~4회 강의
전화 : (02)931-6075~6
(0582)535-1987
(교육청 인가 57호)
딴대교학대학원

바른불교
천부경의 참뜻 바로 보이다
대원 문재현 역저
T.597-2460

病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 관 단 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 수련장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 안내 : (0593)34-1115~6
012-598-1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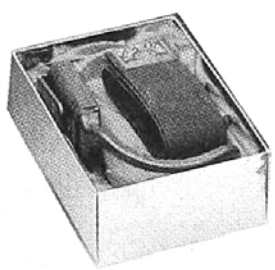
탁자, 단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단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솔각 복전함
•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강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대웅전 문짝 단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단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단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真工 합장

氣치료(초능력)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쳐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처료 불가병.
○ 절에서 가족과 같이 생활하실 노보살님 모십니다.(노부부도 가능)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 불 사
주지 대원 합장 0415-63-0749
011-453-8611

不老化精 안내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혹열지(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밤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맑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如來健康院 合掌
☎ 053)655-2227

백두활법사 자격취득 교육안내
■교육안내
· 본회 자격 취득후 지부 운영 가능
· 교육 수료자는 공인활법사, 스포츠 마사지사의 자격을 부여함
■교육내용
· 활법기초이론 및 교정술(카이로프라틱교육)
· 경추, 흉추, 요추, 골반…
■교육기간 : 2개월(특별속성반 2주)
■교육대상 : 침구 지압, 맛사지 종사자 직장인, 일반인, 대학생, 스님
(사)백두건강활법협회
서울특별시지부
서울시 중랑구 상봉1동 100-17
TEL)434-2017

단전 자동 氣 운동 열풍!



예로부터 신선이 된다고 하는 최고의 건강법으로 알려진 단전회음 "氣" 운동열풍이 인기다. 그러나 너무 힘들고 어려운것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 아주 간편하고 쉽게 단전,회음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잠자리에 누워 스위치만 누르면 20분간 짜릿짜릿한 미세진동파가 단전과 회음을 운동시켜 준다. 단전은 인체 에너지(氣)의 중심이며 단전운동을 통하여 20대 못지않는 건강과 활력을 찾을 수 있다.

대소변이 시원시원해지는 단전, 회음 건강운동기!!
■ 장벽에 수십년 묵은 숙변도 7~15일이면 확실히 빠져나오고 소변이 힘차게 쏟아집니다.
■ 장속에 독소가 빠져서 피로가 없어지고 얼굴색깔이 달라지고 힘이 솟아납니다.
■ 단전·회음운동으로 精氣가 강화됩니다.
⊙ 책자를 무료해 드립니다
韓國傳統 氣 健康 硏究會
Tel. 02)455-6944(代)

광고문의
현대불교 생활정보 광고 효과도 좋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광고주께서 기대하시는 광고 효과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신생아작명
역학개인지도
738-2045.2046
조계사옆 현대불교신문사 앞
韓國民俗哲學硏究所

좌골신경통·목,허리 디스크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院長 張三洙 압구정역
전문시술원
주·五四三·七三〇六 야·七一一·四三七〇

간경화·완치 보장
만성 신장병·정신질환·신병
0552-82-8128, 811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울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 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